

가스통 바슐라르와 상상력의 치유학*

김윤재** · 박치완***

【 차 례 】

- I. 이미지 시대의 부정성과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
- II. 인간 정신과 실존의 운명 : 불과 물
- III. 역동적 상상력과 물질적 상상력에서 주어지는 행복 : 공기와 대지
- IV. 존재론적 - 창조적 상상력과 행복의 치유학
- V. 치유의 인문학로서 상상력 이론

국문초록

인류학자인 뒤랑은 현대의 문명을 기술적 매개를 통해 다양한 이미지들을 제공하며 창조적인 상상력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상상력에는 위협적인 것으로 진단한다. 그 배경에는 참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능력에 비해 상상력은 부차적인 능력으로 취급해온 전통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합리적 능력을 중시하는 전통 속에서 현대인은 자연을 효율적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더 나아가 타인은 물론 자신까지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에 익숙해졌다. 이러한 물화와 소외라는 인간성의 위협에서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은 이미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변형시키는 상상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사유의 가치를 갖는다.

바슐라르의 상상력의 전기 연구라 할 수 있는 상상력의 4원소는 각각 상반된 극에서 나타나는 상호보완을 통해 인간의 운명과 행복을 묘사한다. 불은 객관적 인식을 꿈꾸는 정신의 정화와 주관적 정서를 일깨우는 아늑함을, 물은 이상을 좇는 표면적 삶과 심연으로 가라앉는 죽음의 운명을 나타낸다. 공기는 현실을 벗어나는 실존의 비상과

* 이 논문은 한국기호학회 춘계학술대회(2015.05.02)에서 발표한 것으로, 발표 후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김윤재(한국외대)

*** 공동저자 박치완(한국외대)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는 공포를, 대지는 단단한 대지를 복종시키려는 의지와 내부 속으로 스며들어 생명력을 회복하는 휴식의 행복을 자극한다.

이처럼 4원소는 인간의 삶 전체와 행복을 관통하는 요소이며, 이를 통해 4원소를 포괄하는 총체적 상상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바슐라르는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자신의 실존적 삶을 고지하는 동시에 인간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삶을 창조하게 하는 상상력이라 말한다. 창조적 상상력은 상상하는 인간의 존재를 전환하는 역량이다. 이러한 상상력의 역량을 일깨우는 것은 현대 문명의 현안인 인간성의 훼손을 치유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인문적 치유’와 ‘힐링’, ‘철학상담’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에서 우리는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이 갖고 있는 치유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해보았다.

열쇠어 : 가스통 바슐라르, 창조적 상상력, 4원소, 실존적 삶, 인문 치유

I. 이미지 시대의 부정성과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범람하는 이미지들이 곳곳에서 우리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시대라 할 수 있다. 과학과의 연대 속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기술을 매개로 이미지는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재현되며, 이런 점에서 이미지는 이 시대에 있어 중요한 사유의 주제이다. 바르트는 일찍이 현대 문명에서 이미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파하면서 “이미지의 기호학”이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¹⁾

어원상 모사(模寫), 모방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미지는 감각을 통해 지각한 대상의 재현을 의미하며, 이런 점에서 이미지는 특정한 의미를 갖는 해석되어야 할 기호라 볼 수 있다. 특히 줄리는 시각적으로 고정된 이미지들이 의미를 지닌다고 보면서 “이미지는 소통의 도구이자 귀납과 해석의 역동적 과정에 의한 관념들의 표현”이라 규정한다.²⁾ 이미지를 해

1) R. Barthes, “Rhétorique de l'image”, *Communications* 4, 1964. p.40.

2) M. Joly, *L'image et les signes*, Armand Colin, coll. «Armand Colin Cinéma», 2008, p.35.

석 가능한 기호로 간주하는 20세기 기호학의 이러한 연구 경향은 이미지가 새롭게 평가되는 이 시대에 걸맞게 기호의 지평을 지각과 의미의 상관관계 속에서 확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

그런데 이미지가 무엇보다 지각을 통해 정신에 새겨지는 재현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철학적 관점에서 이미지는 지각을 이미지화하는 상상력의 산물로 이해되었다. 그렇다면 이미지의 시대인 지금 상상력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뒤랑에 따르면, 이미지와 상상력이 중시되는 현대는 모순적이게도 “사피엔스라는 인류에 위협”⁴⁾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이미지가 위협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이미지와 상상력의 위상에 대한 사상사적 맥락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서구 사상은 “존재론적으로는 이미지를, 심리학적으로는 상상력의 기능을 ‘오류와 허위의 주범’으로 평가절하하는 오랜 전통”⁵⁾을 갖고 있다. 참된 실재를 추구하는 사상적 전통에서 이미지는 실재가 사라지고 남는 의식의 산물이며, 상상력은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정신적 능력으로 평가되어왔다. 이미지는 실재하는 대상의 불완전한 단편이기에, 상상력은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처럼 참된 실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은 오류와 허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 능력의 주도 속에서 규제되어야 하는 부차적인 능력으로 간주되어 왔다.

대표적인 학자가 데카르트이다. 그는 오류와 허위를 범하지 않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합리적 능력을 ‘정신의 지도 규

3) 특히 시각기호학은 이런 경향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김성도, 「지각 공간과 의미 작용: 시각 기호학의 한 가지 문제」, 『동서문화』 32,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참조.

4) 질베르 뒤랑, 『상상력의 과학과 철학』, 진형준 옮김, 살림, 1997, 124쪽.

5) G. Durand, *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 Dunod, 10^e éd, 1990, p.15.

칙’에 따라야 진행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서구 문명은 객관적인 지식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믿고, 이를 바탕으로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학문적으로 풍요로운 시기를 맞는다. 여기서 우리는 이론과학의 혁신과 이를 응용한 기술들의 역할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과학이란 무엇보다 세계를 끊임없이 객관화시켜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주관적 접근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대상을 실험과 관찰을 통해 파악하는 자연과학은 물리적 현상들을 가능케 하는 법칙들을 발견해왔으며, 이러한 성과가 기술과 관계를 맺으면서 현재의 물질적 번영을 가능케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와 번영을 과연 현인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을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인류사에 있어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을 빈번하게 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20세기 철학자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결합 속에서 새롭게 출현한 세계상이 긴급한 사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과학기술의 시대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은 주로 기술의 성과는 인간에게 풍요함을 제공했지만, 그와 함께 심각한 부정성을 초래했다는 것에 근거한다.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본질은 ‘은폐된 것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놓은 양식’인 ‘포이에시스’와 달리 자연에게 더 많은 것을 내놓도록 촉진하고 ‘댄달(Ge-stell)’하는데 있다고 본다. 최대한의 효율성에 입각해 촉진하고 댄달하는 현대의 기술은 자연을 언제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부품(Bestand)’으로 환원시킨다.⁶⁾ 이는 자연을 스스로의 생명력을 통해 성장하는 것으로 바라보던 종래의 입장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현대 기술의 본질은 과학이 밝혀낸 법칙을 응용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내놓도록 자연에게 재

6) 이상의 논의는 M. Heidegger, *Essays et conférence*, trad. A. Préau & J. Beaufret, Gallimard, coll. «tel», 1958, pp.26~28 참조. 하이데거는 선반, 작업대를 의미하는 독일어 ‘Gestell’은 자연을 특정한 목적에 맞게 최대한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환원하는 현대 기술의 특징이라고 본다. 하이데거의 주요 개념에 대한 국역은 이기상의 번역본을 따르고자 한다. 하이데거, 『기술과 전향』, 이기상 옮김, 서광사, 1993 참조.

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과학과 기술의 연대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시대는 자연을 인위적 산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자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에게로 향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이 시대의 도처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인은 물질적 번영으로 인해 허용된 여가와 풍요에도 불구하고 더욱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쟁과 성과의 순환적 구조 속에서 타인마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고 목적이 아닌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자연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응용하여 효율적인 결과를 산출해내는 합리적 태도는 인간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 현대인의 사회적 삶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획득해야 하는 효율성의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지금의 문명을 가능하게 한 합리적인 능력은 결국 인간에게 번영을 허락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물화(物化)와 소외(疏外)라는 새로운 문제를 양산했다.

인간의 물화와 소외는 문명의 풍요를 가능하게 한 과학기술의 태생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에 제도적인 규제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세계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와 같은 인위적 기제들 역시 효율성의 척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이러한 시대적 현실에 직면하여 어떤 대안적 사유가 가능한가? 많은 철학자들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예술의 역할을 주목했는데, 본고에서 우리는 상상력이 지니는 힘을 재고하는 것을 한 가지 가능성으로 제안해 볼까 한다.

상상력은 세계를 물리 현상의 법칙을 통해 설명하는 과학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허락한다. 여기서 예술, 특히 시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는 인간 존재의 창조적 역능으로서 상상력을 강조한 바슐라르의 사유는 대안적 사유로서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바슐라르에게 “세계는 참된 것이기에 앞서 아름답다. 세계는 입증되기에 앞서 그 자체로 찬미할 만한 것이

다.”⁷⁾ 이러한 찬미는 다른 어떤 영역들보다도 예술 영역에서 드러난다. 예술작품들을 창조하는 중요한 원천은 바로 합리적 능력의 중시 속에서 배제되어왔던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상상력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해 느끼고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대상에 의미를 자유롭게 부여하고 변형시키는 상상력의 활동은 합리적인 인식의 영역에서는 규제되어야 할지 모르지만, 인간성 전체를 고려할 때 배제되어서는 안 될 영역이다. 따라서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의 검토는 이미지를 과학기술의 생산물과는 다른 존재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미지 기호의 연구가 인간성에 대한 치유의 차원으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⁸⁾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이 갖는 현대적 의의를 제시하려 한다. 먼저 그의 상상력 연구의 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4원소에 관한 연구를 재구성하여 인간의 삶의 구체적 측면들과 연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명히 대립되어 보이는 불과 물, 공기와 대지를 각각 짝을 맺어볼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상상력 이론이 인간의 실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소들을 총괄하는 창조적 상상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통해 상상력 이론이 갖는 치유의 가치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7) G. Bachelard, *L'air et les songes*, José Corti, 1943, p.192. 본 논문에서 빈번히 인용되는 바슐라르 시학의 주요 텍스트들을 다음과 같이 축약하고자 한다. G. Bachelard, *La psychanalyse du feu*, Gallimard, 1938(PF), G. Bachelard, *L'eau et rêves*, José Corti, 1942(ER), G. Bachelard, *L'air et les songes*, José Corti, 1943(AS), G. Bachelard, *La terre et les rêveries de la volonté*, José Corti, 1948(TV), G. Bachelard, *La terre et les rêveries du repos*, José Corti, 1948(TR),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PUF, coll. «Quadrige», 1984(PE).

8) A. J. Greimas, *Du sens*, Seuil, 1970, p.15 이하 참조. 그레마스는 의미란 무엇보다 주어진 의미를 변형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상력이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능력이라면, 한 기호가 갖는 의미의 핵심이 변형에 있다는 그의 주장은 이미지 기호의 연구가 상상력과의 연관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II. 인간 정신과 실존의 운명 : 불과 물

바슐라르의 상상력에 대한 연구는 사실 과학적 인식의 과정에서 정화해야 하는 주관적 확신들이 무엇인지 분석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한다. 현대 과학의 활동은 무엇보다 최초의 관찰과 상식으로부터 단절하면서 출발한다. 이들은 과학의 진보를 저해하는 동시에 과학적 성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장애이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상상력과 이를 통해 창조되는 이미지들을 분석하는 상상력 연구의 출발지점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반성이자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바슐라르는 객관적 인식을 저해하는 주관적 확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그 첫 작업으로서 불에 대한 이미지들의 분석을 시도한다. 불이라는 원소는 타오르면서 대상들을 순수하게 만드는 정화와 관련되어있다. “불이 물질들을 분리시키고 물질적 불순성들을 소멸”¹⁰⁾시킨다는 다소 과학적인 설명은 비합리적인 주관의 확신들을 정신분석하면서 객관적 인식에 도달하려는 그의 의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불꽃의 끝에서 불은 “정신이 된다.”¹¹⁾ 바슐라르의 인식론에서 물질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이끄는 것은 스스로를 혁신하는 과학 정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의 이미지에 대한 탐구에 그가 이끌렸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바슐라르는 불의 이미지들에 접근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환해야 함을 알게 된다. 불의 이미지들은 그저 정신으로의 정화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락하고 감미로운 휴식을 제공하는 열기를 전하기 때문이다. 불을 응시하는 인식론자는 자신의 검증되지 않은 확신을 분석하고

9) “과학적 진보의 심리학적 조건들을 찾을 때, 우리는 곧 장애라는 용어가 과학적 인식의 문제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도달한다.” - G. Bachelard, *La formation de l'esprit scientifique*, Vrin, 1938, p.13.

10) PF, pp.175~176.

11) PF, p.177.

정화해야 한다는 과업을 느끼지만, 그와 동시에 불이 주는 안락함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아궁이 속에 갇힌 불은 분명 인간에게는 제 1의 몽상 주제이자, 휴식의 상징, 휴식에의 초대이다. (...) 분명 불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해준다.”¹²⁾ 상상력의 관점에서 볼 때, 불의 이미지들은 인간에게 객관적 인식을 위해 정화되어야 하는 장애가 아니다. 오히려 불은 인간에게 따뜻한 열기와 걱정적 사랑으로 다가온다. 선사 시대부터 불은 사랑과 다산을 상징했으며 이와 관련된 의식들은 이를 입증한다. 이처럼 불의 이미지들이 주는 주관적 정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 바슐라르는 상상력이 인간에게 주는 기쁨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구체적인 삶과 만나는 기쁨이다.

그러나 객관적 인식에 대한 정신분석이 이루어진 후, 그 과학적 오류는 오류로 인정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즐거운 논쟁의 대상으로 남는다. (...) 하지만 그러한 객관적 인식이 주관적인 것에 대한 객관적 인식일 때, 우리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인간의 보편적 특성을 발견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연구가 당당하게 정신 분석을 받으면서 우리가 도덕적 규칙들을 심리적 법칙들에 통합시킬 때, 그러한 기쁨은 더 강렬해지지 않겠는가! 그럴 때, 지금껏 우리를 불태워오던 불은 문득 우리를 밝게 비추어주는 불이 된다. 우연한 열정이 의도적인 열정이 된다. 사랑이 가정적이 된다. 불이 아궁이의 불이 된다.¹³⁾

상상력은 분명 과학적 인식을 저해하는 장애이자 오류의 원인이지만, 그 장애는 인간의 또 다른 삶의 영역인 주관적 정서와 만나게 한다. 객관화된 인식을 위해 완고하게 자리 잡은 장애를 정화하기 위한 불은 상상력을 통해 구체적인 삶과 연결되면서 인간의 삶을 아늑하게 비추는 불이 되고, 바슐라르를 휴식으로 이끄는 아궁이의 불이 된다. 이제 우리는 주

12) PF, pp.36~37.

13) PF, pp.170~171.

관적인 정서가 객관적 인식에 못지않게 인간에게 보편적이며, 삶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슐라르는 상상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에게 명석한 인식보다 앞서 주어지는 모호한 느낌의 기쁨이 주는 고유한 가치를 통찰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느낀다’는 모호함은 ‘나는 본다’라는 명석함에 앞선다.”¹⁴⁾는 바슐라르의 선언은 인간에게 주관적 정서가 인식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불은 인간에게 열정적 사랑을 일깨우면서도 아늑함을 느끼게 하는 원소라 할 수 있겠다.

물은 불과 대립되는 성질을 가진 원소이며 이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면서 순수하게 만드는 원소라면, 물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 그렇기에 물의 상상력에 접근하는 것은 정신분석이 아니라 “관여(participation)”¹⁵⁾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은 물의 본성과 깊게 관련되어 있는데 물은 표면에서는 물론 깊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반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물을 계기로 삼거나 물질로 삼는 이미지들은 대지, 수정, 금속, 보석에 의해 제시되는 이미지들의 불변성과 견고성을 지니지 않는다.”¹⁶⁾ 물은 오히려 불변성과 견고성을 지니지 않기에 모든 것을 반영하며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물의 상상력에서 인간의 삶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먼저 바슐라르는 표면과 깊이를 나누어서 제시한다. 표면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삶은 무엇보다 빛나며 경쾌하고 아름답다. 물의 표면은 빛으로 반짝거리며 대상을 반영한다. 거울로 비유되는 표면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지나칠 정도로 익숙하지 않은가. 그런데 물의 반영은 평평한 연마된 유리판에 비추어지는 것과 달리 미세한 파문에도 비춰지는 이미지를 흐릿하게 한다. 또한 거울에 비추어진 상은 절대로 자신과 맞닿을 수 없도록 분리되어 있지만, 물에 비추어진 이미지라면 사정이 다르다. 물이라는 물질

14) G. Bachelard, *op. cit.*, p.13.

15) ER, p.8.

16) ER, p.29.

은 대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대상을 받아들인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거울과 달리 흐릿하게 보이는 물의 반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상을 직접 만지길 욕망하며 더 나아가 사랑하게 된다. 바슐라르는 이를 나르시시즘에 통해 설명한다. 물에 비추어진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해야 하는 형벌을 지게 된 나르키소스의 일화는 인간과 무관한 신화의 단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마 그것은 하나의 이상을 향한 승화(sublimation)일 것이다.”¹⁷⁾ 나르키소스가 사랑했던 물에 비친 자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흐릿하면서도 빛과 함께 반짝거리는 이상화된 이미지이며, 이는 현실 속에서도 이상적인 것을 꿈꾸고 사랑하는 인간의 삶을 의미한다. 여기서 나르시시즘은 정신분석학적인 자기애를 넘어서 인간의 운명을 의미하게 되며, 각자의 삶에서 마주했던,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그 속에서 꿈꾸는 이상을 투영하게 된다.

그런데 나르키소스는 결국 그 이상적인 자신과 하나가 되고자 샘물에 빠져 죽는다는 신화의 결말은 깊이로 끌어당기는 물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물은 모든 것을 그 심연의 밑바닥까지 받아들인다. 이런 점에서 상상력의 원소로서 물은 다른 원소들에 비해 깊이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불의 열기가 주는 아늑함과는 다른 침잠이며 빛도 투과할 수 없는 어둠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그렇기에 물의 상상력은 죽음과도 깊은 연관을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표면의 빛과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깊고’, ‘잠자는’, ‘죽은’이라는 형용사로 표현된다.¹⁸⁾ 밀레이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오피리아의 죽음은 비극의 여주인공이 처한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다. 상상력의 원소로서 물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운명의 흐름 속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기 때문이다. 다른 원소들보다 물의 이미지들은 무엇보다 인간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 “물은 항상 흐르며, 물은 항상 떨어지며, 그리고 항상 수평

17) ER, pp.34~35.

18) ER, p.63.

적인 죽음으로 끝난다.”¹⁹⁾ 여기서 우리는 물의 상상력이 인간의 삶에 이미 관여하고 있다는 바슐라르의 분석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표면에서 비추어지는 이상적인 것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심연으로 가라앉는 죽음으로 자신의 삶이 종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기에는 “완만하며 고요한 우수(mélancolie)”²⁰⁾만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물은 표면과 깊이의 대립 속에서 이중적인 인간의 삶을 각자에 맞게 비추고 받아들여 준다. 물은 이러한 대립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원소인 셈이다.

불과 물은 대립된 원소들이다. 불은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불태우면서 하나가 되게 한다. 바슐라르에게 불의 활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객관적 인식을 위한 정화와 열기와 사랑을 느끼게 하는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일깨우는 아늑함이 그것이다. 이 두 방향은 어찌 보면 서로 양립할 수 없어 보인다. 라클로스가 지적했듯 “특히 바슐라르에게 있어 과학의 주체는 이미지들의 정련이라는 정화의 경험을 해야만 하고, 과학적인 미덕의 실행을 방해하는 경향”들을 배제해야 한다.²¹⁾ 역으로 ‘살균된 세계(univers pasteurisé)’에서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상상력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바슐라르의 유명한 주장²²⁾은 과학적 인식이 작동할 수 없는 주관적 영역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슐라르에게 두 영역이 서로 대립되었다는 것은 양립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식론에 있어서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인식들을 종합하는 현대 과학의 변증법적 활동을 강조했던 바슐라르는 인간의 정신과 상상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철학이 희망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시와 과학을 상보적이 되게 하는 것, 양자를 잘 어울리는 대립자로

19) ER, p.9.

20) ER, p.10.

21) F. Fruteau de Lacos, “Le sujet de épistémologie et l’objet de la phénoménologie, De quelques lignes tranquillement entremêlées dans l’entre deux-guerres français”, *Le concept, le sujet et la science*, eds, P. Cassou-Nouès · P. Gillot, Vrin, 2011, p.51.

22) P. Ginestier, *Bachelard*, Bordas, 1968, pp.10~11 참조.

결합하는 것이다.”²³⁾ 그렇기에 객관적 인식과 주관적 정서는 상호 보완하면서 인간성 전체를 구획한다. 물론 이것 역시 인간이 타고난 운명이다. “인간은 진정으로 지성을 열망하는 존재이다. 이 인식의 운명은 끝을 알 수 없다.”²⁴⁾ 인식의 운명을 타고났듯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 체험을 통해 살아간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따라서 인간은 인식과 상상적 삶의 운명을 동시에 타고난다고 볼 수 있다.²⁵⁾

불과 달리 물의 이미지들은 이미 인간의 삶을 비추고 받아들이기에 바슐라르는 객관적 인식과 그와 구별되는 주관적 삶의 이중적 운명을 깨닫게 하는 불과 달리 인간의 실존적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물의 이미지들은 표면에서 비추어지는 상을 보며 심층에 대한 이상을 꿈꾸지만, 삶은 심연으로 가라앉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아는 인간의 실존과 연관되어 있다. 이상을 향한 열정과 모든 가능성들이 종결되는 죽음은 대립되어 보이나 이들 역시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실존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인 죽음을 자각할 수 있기에 자신의 본래적 삶을 결단하기 때문이다. 이상을 향한 갈망은 무엇보다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강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심연으로 빠져 죽음을 맞이한 나르키소스는 수선화로서 표면에 피어난 것이며, 수선화는 표면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결국 심연의 죽음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징표인 것이다. 이러한 실존의 삶을 느끼면서 비로소 우리는 물의 상상력에 관여하는 바슐라르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이해하게 된다. “상상력은 어원학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현실의 이미지들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넘어서 현실

23) PF, p.12.

24) G. Bachelard, *L'activité rationaliste de la physique contemporaine*, PUF, 3^e éd., 1977, p.309.

25) 뒤랑은 바슐라르 사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인간의 운명에 대해 “제3의 변증법(La troisième dialectique)”이라 요약한 바 있다. - G. Durand, *L'âme tigrée*, Denoël/Gonthier, 1980, p.22.

을 노래하는 이미지들을 형성하는 능력이다. 그것은 초인간성의 능력이다.”²⁶⁾

Ⅲ. 역동적 상상력과 물질적 상상력에서 주어지는 행복 : 공기와 대지

불과 물에 비해 공기와 대지의 상상력은 물질성의 측면에서 더욱 분명한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상상력의 네 가지 원소들 중에서 공기는 가장 가볍고 빈약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무색투명한 기체인 공기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지만, 그에 반하여 가장 빈약한 물질성을 갖고 있다. 형태도 없으며 쥐어지지 않고 가시적이지도 않다. “공기는 물질적 측면에서 보면 빈약하기 때문에 물질적 상상력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질 공기에 대한 고찰은 길지 않을 것이다.”²⁷⁾ 그런데 바로 가장 빈약한 물질성을 지니고 있기에 공기 속에서 인간은 적극적인 운동을 꿈꿀 수 있게 된다. 공기의 상상력은 다른 원소들에서 나타나지 않는 수직적이고 역동적인 삶으로 인간을 인도한다. 따라서 공기의 상상력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무엇보다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를 들어올리고, 우리를 상승시킨다.”²⁸⁾

그렇다면 인간이 하늘을 날고자 하는 상승에의 욕망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가? 새를 바라보며 누구나 꿈꾸어봤을 비행의 꿈은 주어진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특히 공기의 현상들은 우리에게 상승과 비상과 승화에 관한 매우 일반적이고 중요한 교훈을 줄 것이다.”²⁹⁾ 바슐라르는 상승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이야말로 공기의 상상력에서 나타

26) ER, p.23.

27) AS, p.15.

28) AS, p.52.

29) AS, p.17.

나는 ‘역동적 상상력’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그 본질은 “중력의 정복”³⁰⁾에 있다. 중력은 인간이 지상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힘이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이 비상할 수 없게 하는 무게이다. 그래서 중력을 정복하는 공기의 상상력은 무엇보다 해방과 자유를 꿈꾸는 인간의 삶을 의미한다. 니체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공기의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바슐라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기는 우리를 물질적 예측으로부터 해방시킨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들의 자유의 물질이다.”³¹⁾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열망하면서도 자신을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 언제나 추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수직적으로 작용하는 상상력에서 상승의 반대는 하강이며, 비상의 반대는 추락이다. 추락은 비상과 마찬가지로 공기의 상상력의 특징인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토마스 드 퀴시의 글을 분석하면서 바슐라르는 역동적인 추락에서 심연이 연역된다고 말한다. “나는 떨어진다, 고로 한 심연이 내 발 아래로 열린다. 나는 계속 떨어진다, 고로 심연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³²⁾ 추락에 대한 이미지들은 자유의 행복을 위해 비상하려는 인간이 언제나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며, 그것에 대한 끝없는 공포가 심연을 창조한다.

대지는 공기와 맞닿아 있지만 결코 비상과 추락이라는 역동성을 가질 수 없다. 공기가 최소의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원소라면, 대지는 최소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원소이기 때문이다. 대지는 무엇보다 아주 견고하며 안정되어 있다. 즉 인간에게 아주 직관적인 물질성과 안정감과 형태를 느끼게 한다. 바슐라르에게 대지의 상상력은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덧붙일 정도로 아주 특징적이고 분명히 대립되는 운동을 보인다.³³⁾ 대지는 ‘의지(volonté)’와 ‘휴식(repos)’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대지의 특성이 인간에게 불려일

30) AS, p.111.

31) AS, p.157.

32) AS, p.112.

33) TV, p.9 참조.

으키는 두 가지 심리에서 연유한다. 우리가 흙과 바위를 만질 때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 그 행위가 근육을 사용하게 한다는 점이다. 즉 대지는 인간에게 저항하는 적대적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대지가 다른 원소들에 비해 명확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저항은 인간에게 그것을 복종시키려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돌의 질감을 느끼기 위해 움켜질 때 단단함을 느끼게 되며 그 형태를 바꿀 수 있는지 시험해보게 된다. 바슐라르는 이것이 대지가 인간에게 주는 의지의 상상력이며, 또한 ‘외향성(extraversion)’으로서 “충격, 타격에 만족하지 않고 물질의 내밀성 자체를 지배할 것을 약속하는 맞섬의 심리학(psychologie du contre)”³⁴⁾이라고 말한다. 인류의 역사는 물질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면서 이루어져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지의 요소들인 흙과 암석, 광물들을 인위적 노력을 통해 도구들을 창조한 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지의 상상력은 인간이 의지를 통해 창조하는 행위와 직결되어 있다. 대지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찰흙에서부터 금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그것은 결국 끊임없이 대지와 세계를 변형시키고 창조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지의 안정성은 인간에게 반대 방향으로 향한 삶을 깨닫게 한다. ‘내향성(introversion)’이라 말할 수 있는 “‘안에(dans)’라는 전치사”³⁵⁾에 속하는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바슐라르는 대지의 내부로 들어가려는 상상력에서 주요한 특성은 휴식이라고 말한다. 의지와 달리 휴식은 견고한 표면에서 내부로 스며들면서 내부의 생명력을 통해 회복하려는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 표면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려는 상상력은 그렇게 남성적인 의지의 상상력과 달리 세심하다. “(…) 세심한 상상력은 어디로든 스며들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껍

34) TV, p.21.

35) TR, p.2.

질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권유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은둔의 삶, 몸과 마음을 모아들인 내성적인 삶, 휴식의 그 모든 가치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온 껍질 안으로 스며들라는 권유이다.”³⁶⁾

껍질 안으로 들어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휴식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나 활기를 충전하기 위한 쉽이다. 다시 활동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잠시 동안 취하는 행복인 것이다. 휴식처가 주는 안식과 따뜻함은 인간의 삶에서 무엇보다 각별하다. “추위와 더위, 폭풍과 비에 대응하는 집은 우리에게 자명한 보호처”³⁷⁾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지의 내향적 상상력은 보호의 처소로서 집을 넘어서 휴식의 근원에 닿는다. 바슐라르는 이 근원을 대지의 내부에 있는 생명력이라고 말한다. “동굴 속에 거주함은 대지적인 명상을 시작하는 것이며, 모성적 대지의 바로 그 가슴 속에서 대지의 생명력과 함께하는 일이다.”³⁸⁾ 고대인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이 집결되어있고 그렇기에 신성하게 여겨졌던 동굴은 안정과 회복을 의미하였고, 이러한 사고가 반영된 신화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지의 상상력에서 의지와 휴식은 인간의 또 다른 운명을 보여준다. 인간의 삶은 구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의지와 함께 일하고 활기의 충전을 위해 휴식하는 과정의 끊임없는 반복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기와 대지의 상상력에서는 어떤 대립적인 운동이 양립하는지 정리해보자. 공기는 희박한 물질성으로 인해 원소들 중 가장 역동적이다. 또한 대지의 위에 있기에 무엇보다도 인간의 상상력을 가장 활발하게 일깨운다. 새처럼 가볍게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비행하는 꿈은 언제나 인간의 감성을 자극해 온 오래된 주제이다. 그렇기에 공기의 상상력은 인간에게 시간과 함께 영글어가는 성숙의 과정이 아니라 ‘비약(élan)’을 꿈꾸게

36) TR, p.18.

37) TR, p.112.

38) TR, p.290.

한다. “상상하는 것, 그것은 곧 부재하다는 것이며, 새로운 삶을 향해 운동하는 일이다.”³⁹⁾ 바슐라르가 공기의 상상력에서 ‘여행에의 초대’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삶을 향한 비약이기 때문이다. 공기의 이미지들은 인간을 쉬지 않고 운동하는 열린 상상력의 삶으로, 즉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삶으로 초대한다. “꿈속의 비행에서는 우리가 다시 땅으로 되돌아온다 할지라도 곧바로 또 다른 새로운 충동이 우리에게 공기적 자유를 되돌려준다.”⁴⁰⁾ 그러나 인간에게는 상승의 자유와 상응하는 추락에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중력의 해방이 모두에게 자유를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력에 익숙해진 인간은 자신이 지면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 현기증을 느끼기도 한다. 바슐라르는 젊은 나이에 스트라스부르 성당의 꼭대기에 올라간 이후 산과 탑을 좋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개인적 체험을 소개하면서, “끝없는 추락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⁴¹⁾고 말한다.

여기서 추락의 이미지는 대지와 연결된다. 현기증은 견고하며 안정된 대지에서 벗어나 부유하는 공기 위로 비상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다. 대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승은 오히려 하늘로의 도피인 셈이다. 그렇다면 지상에서는 어떠한 양가적 운동이 나타나는가? 대지는 공기와 정반대로 역동성의 희박하며, 견고한 물질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지는 인간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적극적 활동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인간의 의지는 대지의 저항에 맞서 그것을 변형시키고 지배하려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수고로운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모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휴식은 자연스럽게 의지적 활동에 상응하는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바슐라르에게 공기와 대지는 불과 물과 달리 매우 대칭적인 동시에 인

39) AS, p.10.

40) AS, p.38.

41) TV, p.344.

간의 행복을 강조하는 원소들이다. 공기의 상상력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탈구하게 한다. 자유가 주는 행복은 반복적 과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하기에 주어지는 것이다. 공기의 상상력에서는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추락의 종착지인 대지는 그와 다른 행복을 갖는다. 그것은 대지를 복종시키기 위해 땀을 흘리며, 이러한 노동을 통해 창조하는 행복과 노동 뒤에 편안하게 회복에 빠지는 휴식의 행복이다. 공기의 상상력이 주는 행복이 가벼워짐을 통해 자신을 붙드는 대지의 구속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비상하는 도취의 행복이라면, 대지의 상상력은 완강하게 저항하는 대지라는 터전을 새롭게 바꾸고 그 터전이 주는 생명력과 함께 하는 행복이다.

IV. 존재론적-창조적 상상력과 행복의 치유학

우리는 지금까지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의 전기라 할 수 있는 4원소를 주제별로 나누어서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구분이 실제와 부합하는 것 인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상상력이란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바슐라르는 “상상력이란 지각에 의해 받아들여진 이미지들을 변형시키는 능력이며, 무엇보다도 애초의 이미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미지들을 변화시키는 능력”⁴²⁾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4원소는 인간의 상상력을 구성하는 동시에,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물론 모든 인간이 동일한 원소의 이미지에 의해 자극되진 않는다. 각자의 구체적인 삶에 따라 작동하는 원인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바슐라르가 정의하는 ‘상상력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대상물 전체 속에서 실체의 심오한 기호로서 특질을 찾는 대신에 그가 상상하고 있는 것 안에 깊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와의 전적인 접촉

42) AS, p.7.

속에서 특질을 찾아야 한다.”⁴³⁾ 그러므로 상상력의 원소들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며 구체적인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실존들의 삶에 차이나게 작용한다. 그렇기에 상상력은 무엇보다 각 실존들의 삶에 맞게 활동한다.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삶을 깨달으며 자신의 현실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바슐라르는 상상력이야말로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중요한 능력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상상력이란 사물들 속에 옮겨진 주제 외의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니 이미지들은 주체의 자취를 지닌다.”⁴⁴⁾ 4원소의 상상력은 각 원소들을 통해 인간의 현실과 그 현실을 넘어서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서 상상력을 일깨워준다. 이는 현대의 인간이 망각해왔던 실존적 삶의 운명과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상력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치유학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에서 네 가지 원소로 나타나는 인간의 삶은 사실 하나로 총합되는 것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식과 상상의 삶을 일깨우는 불, 이상과 죽음의 운명에 관여하는 물, 비상과 추락을 꿈꾸게 하는 공기, 의지와 휴식으로 굳건하게 놓여있는 대지는 인간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네 가지 원소들이라는 구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의 상상력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4원소에 대해 탁월한 연구를 남긴 망수이의 언급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삼원소의 혹은 사원소의 상상력들은 그것들의 세계의 전체적 종합과 비전을 탐사한다.”⁴⁵⁾ 물론 각각의 인간 실존은 특정한 원소에 의해 자극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대한 작가들의 상상력은 하나의 원소로만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바슐라르에게 대지의 시인은

43) TR, p.81.

44) TR, p.3.

45) M. Mansuy, *Gaston Bachelard et les éléments*, José Corti, 1967, p.332.

아닌 것으로 보였던 니체는 공기의 상상력 못지않게 대지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⁴⁶⁾ 또한 무엇보다도 물의 상상력에서 나타나는 심연의 죽음을 노래하는 포우 역시 무거움으로 향하는 추락의 이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⁴⁷⁾ 이처럼 위대한 작가들의 상상력이 여러 원소들을 넘나든다는 것은, 그 이미지들을 창조하고 또한 이들에 자극되는 인간의 상상력이 총체적 세계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슐라르는 후기의 상상력 연구에 속하는 첫 저작인 『공간의 시학』에서 자신의 4원소에 대한 연구를 반성하면서 우리의 논의를 중요한 지점으로 인도한다.

사실 우리는 상상력에 대한 우리의 앞선 저작들에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직관적인 우주발생론의 네 원리인 물질의 4원소에 관한 이미지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하였다. 과학철학자로서 우리들의 습관에 충실하게 우리는 이미지들을 개인적 해석의 모든 경향들 바깥에서 검토하고자 했던 것이다. 과학적인 신중함을 위한 이 방법은 점차 내게 상상력의 형이상학을 세우는데 불충분한 것으로 보였다. ‘신중한(*prudente*)’ 태도는 그것만으로 이미 이미지의 직접적인 역동성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닌가?⁴⁸⁾

여기서 바슐라르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먼저 4원소로 분할하여 검토했던 상상력은 하나의 기반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이미지들을 원소에 따라 신중하게 분류했던 자신의 탐구가 오히려 이미지의 역동성 자체를 간과하게 했다는 그의 고백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형성하는 인간의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바슐라르의 대답은 더욱 흥미롭다. 상상력은 인식의 차원과 지각 활동과의 연관 속에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이미지를 보고, 재생산하고, 기억하는 심리적 능력

46) AS, p.147 참조. 이에 대해 망수이는 “니체의 상상력이 대지의 이미지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독수리와 마찬가지로 그는 뱀을 사랑한다.”고 지적하고 있다(*ibid.*, p.337).

47) AS, pp.120~121 참조.

48) PE, pp.2~3.

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역량인 것이다. “우리는 상상력을 인간 본성의 아주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하기를 제의한다.”⁴⁹⁾ 따라서 상상력은 인식론과 심리학에서 부여받았던 위상에서 벗어나 존재론적 의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상상력의 형이상학’의 함축이라 할 수 있다.⁵⁰⁾

상상력이 존재론적 위상을 갖는다는 바슐라르의 입장은 ‘반향(résonance)’과 ‘울림(ressonance)’에 대한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현상학적 쌍형어(doublet phénoménologique), 반향과 울림의 차이는 뚜렷해져야 한다. 반향은 세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여러 상이한 측면으로 흩어지는 반면, 울림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실존의 심화를 불러일으킨다.”⁵¹⁾ 하나의 예술 작품에서 고유한 실존을 자극하는 이미지는 먼저 고유한 삶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인간의 상상력은 이것을 넘어서 그 작품의 이미지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감동과 함께 다가오는 작품은 종종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고 싶게 만들지 않는가? 바슐라르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시인은 나에게 그의 이미지의 과거를 알려주지 않지만, 그 이미지는 즉시 나의 내부에 뿌리를 내린다. 독특한 이미지의 전달가능성은 커다란 존재론적 의미를 갖는 사실이다.”⁵²⁾ 바슐라르는 이것을 상상력이 가져다주는 존재의 전환이라고 말한다. “울림은 존재의 전환을 가져온다. 시인의 존재는 우리들의 존재인 것처럼 느껴진다.”⁵³⁾ 그렇기에 예술 작품은 감상의 대상만이 아닌, 실존적 삶을 바꾸는 중대한 계기가 된다.

상상력이 이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슐라르는 인간 존재의 역량으로서 상상력의 본질은 바로 창조성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창조적 상상력은 재생적 상상력(imagination

49) PE, p.16.

50)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로서 홍명희, 「이미지와 상상력의 존재론적 위상」, 『한국프랑스학논집』 49, 한국프랑스학회, 2005. 특히 426~428쪽 참조.

51) PE, p.6.

52) PE, p.2.

53) PE, p.6.

reproductrice)와 전적으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심리학자들이 한 정신이 사회적 가치들에 의해 낙인찍힌(estampillée) 현실에 적응함을 특징짓기 위해 종종 언급하는 현실의 기능에 못지않게 심리적으로 유용한 비현실의 기능이 창조적 상상력에 속한다.”⁵⁴⁾ 인간의 상상력은 주어진 현실을 창조를 통해 넘어서게 한다. 한 실존에게 깊은 각인을 남긴 작품이 때로는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생적 상상력이 지각과 기억을 위한 연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것이라면, 창조적 상상력은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존재의 능동적인 역량이다. 창조는 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예술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에 자극되는 실존의 삶에까지 나아간다. 따라서 상상력은 항상 인간의 삶을 새로운 미래로 향하게 한다. “상상력은 그것의 생동하는 활동에 있어서 우리들을 과거와 현실에서 동시에 떨어져 나오게 한다. 그것은 미래로 열려있다(ouvre).”⁵⁵⁾ 존재론적-창조적 상상력은 항상 열려있기에 고정될 수 없다. “상상력은 미래를 시험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들을 무거운 안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무모함(imprudence)의 요인이다.”⁵⁶⁾

바슐라르는 인식을 위한 ‘신중함’과 반대되는 ‘무모함’이 상상력의 본성이라고 말한다. 신중함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불가결한 준칙이라 한다면, 무모함은 현실을 넘어서는 비현실과 미래로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내던지는 모험이라 할 수 있다. 바슐라르는 이러한 상상력의 모험은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고 말한다.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 자신을 늘 새롭게 창조하는데, “그 새로운 존재, 그것은 행복한 인간”⁵⁷⁾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그의 입장은 다소 낭만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한 인간은 그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현사실로서 세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 현사실은 무엇보다 도구·

54) TV, p.3.

55) PE, p.16.

56)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a rêverie*, PUF, coll. «Quadrige», 1984, p.7.

57) PE, p.12.

기술중심적인 문명으로 인한 “닫힌 공간”이며 “효용성, 효율성, 경제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각진 공간이 아니던가?⁵⁸⁾ 그런데 이러한 문명의 현주소는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인간의 편리를 위한 기술이 역으로 인간을 종속시키고 상상력을 마비시킨 도착적 상황에서 기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바슐라르의 상상력은 우리에게 비현실로 도약하는 행복한 상상력의 삶을 권유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여행에로의 초대’는 인간 실존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인 창조적 상상력이 주는 현실을 넘어서는 행복으로의 초대를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이 상상력을 통해 자신을 넘어서는 ‘초인간(surhomme)’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물론 인간 실존의 삶은 4원소의 상상력을 검토하면서 보았듯, 상반된 방향들 속에서 끊임없이 보완되는 관계에 놓여있다. 각 원소들의 이미지가 보이는 대립적 운동은 상보적 관계를 통해 인간 삶 전체를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인간의 삶이 항상 긴장과 역동의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상상력은 인간에게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만, 또한 인간을 새로운 삶을 창조하도록 이끈다. “상상력과 의지는 동일한 심층적 힘의 두 측면이다. 상상할 줄 아는 사람은 원할 줄 안다. 의지를 밝혀주는 상상력에 상상하려는 의지, 상상하는 것을 사는 의지가 결합된다.”⁵⁹⁾ 상상력은 인간 존재의 역량이기에,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상상력의 치유학’은 인간이 본래 주어진 상상력을 통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새롭게 사는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은 인간성을 구성하는 본래적 부분으로서 존재론적 - 창조적 상상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향하게 한다. “상상적인 삶—그것이 진정한 삶!”⁶⁰⁾이라는 그의 강조는 상상력의 존재론적 - 창조적 역량에 대한 우리의 논의

58) 박치완, 「상상력의 힘과 현대문명 비판」, 『비교문화연구』 9: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5, 51~54쪽 참조.

59) AS, p.130.

60) AS, p.288.

를 한마디로 요약하며, 인간성의 결손이라는 지금 시대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치유로서 상상력을 제안하는 것이다.

V. 치유의 인문학로서 상상력 이론

도구적·기술적 이성의 강조 속에서 물질적 번영을 이룩해 온 지금의 인간은 스스로가 초래한 문제로 인해 자신 역시 중대한 위협에 봉착했다. 자연의 자생력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의 추구아래 가능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태도는 인간 자신에게로 향하였고, 그 결과 현대인은 스스로를 착취하는 구조 내에 위치시켰다. 노력한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긍정을 극대화하는 지금의 문명은 경쟁의 구조를 극단화시키며, 인간이 자신을 한계를 넘어서까지 쥐어짜는 세련된 구조를 완성했다. 현대인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피로와 권태를 느끼고, 매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상상력이 존재론적·창조적 역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쉽사리 닿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뒤랑은 지금의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삼중의 위협을 “이미지가 상상계를 질식시킬 때의 위험”, “이미지가 집단의 가치들을 균등화시킬 때의 위험”,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힘들이 그 통제가 불가능한 문명적 혁명에 의해 포섭되고 침식당할 때의 위험”⁶¹⁾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수용하게 만드는 이미지는 인간의 존재 역량인 상상력을 가로막는다. 마르쿠제는 이러한 상황을 ‘일차원적 사회’가 보이는 특징 중 하나인 “미학과 현실간의 저속한 연합”⁶²⁾이라 요약한다. 저속한 연합은 상상력을 기술적 합리성을 통해 종속시키며, 그 결과 현대인은 상상력이 공상적인 것을 제공하는 능력일 뿐이며, 연합의 산물로서 이미지는 기술에 의해 현실화되어야 할 것

61) 질베르 뒤랑, 앞의 책, 125~126쪽.

62) H. Marcuse, *L'homme unidimensionnel. Essai sur l'idéologie de la société industrielle avancée*, trad. M. Wittig, Minuit, 1968, p.272.

으로 이해한다.

합리적 능력으로서 이성에 의한 진보가 인간 정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마르쿠제는 바슐라르가 수행했던 연구의 탁월성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우리가 상상력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치유적 힘이 된다. 치유적 힘은 노이로제의 치료에 요긴하지만, 이보다 더욱 특별한 부류의 실효성을 갖는다. 이 전망을 개괄한 것은 시인이 아니고 과학자였다.”⁶³⁾ 현대 사회는 상상력을 인간의 물질적 번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살피었듯이 상상력은 인간 존재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바슐라르에게 상상력은 현대인이 잃어버린 일부분이자, 진정한 삶을 가능케 한다. 바슐라르의 작업에 대한 마르쿠제의 평가는 현대의 기술편향적 문명에 의해 본래적으로 상상하기를 망각해버린 일차원적 인간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상상력의 회복임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은 치유학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본 논문의 마지막 물음이며, 인간의 존재론적·창조적 상상력을 강조한 그의 통찰을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상상력은 실존으로서 각 인간에게 본래적 삶으로서 끊임없이 비현실을 향해 도약하는 행복을 일깨우지만, 어떻게 상상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가? 바슐라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상상계를 다루는 철학자라도 ‘대지로의 복귀’라는 문제와 대면하게 된다.”⁶⁴⁾라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상상력 이론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체험과 맞닿아서 새롭게 살도록 고무된 한 실존의 입장에서부터 탐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 실존의 행복을 넘어서 타자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회 전체로 수평적으로 퍼져 나가는 상상력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윤리적 상상력”이라고 규정했다.⁶⁵⁾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윤리적 상상력

63) *Ibid.*, p.273.

64) TR, p.111.

의 가능성⁶⁶⁾을 우리는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으로서 우리는 상상력 이론의 ‘인문학의 치유 기능’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힐링(healing)’이라는 말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인문학을 통해 사람들 개인의 문제인 정신적·정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⁶⁷⁾이라는 인문학의 치유 기능은 기존의 정신과 심리를 치료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을 갖는다. 최근의 한 연구는 인문학의 치유가 복원과 회복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원래의 순수 상태로 혹은 온전한 상태로 되돌림’ 혹은 ‘전체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⁶⁸⁾ 이러한 회복과 복원에 생각할 때,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은 치유의 인문학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네스티에는 이 점을 일찍부터 간파했다. “바슐라르에게 있어 정신분석은 이해와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 (...) 예술에 있어서 치유는 상상력의 발전의 연속을 가장 잘 따를 수 있기 위해 이해시키는데 있다.”⁶⁹⁾ 환자의 고백을 통해 정신질환을 야기한 원인을 판단하는 것과 달리 바슐라르에게 있어 정신분석은 예술과 상상력의 영역이기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심리학자인 셀린 역시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의 치유 기능에 주목하여 “힐링은 그저 기억의 회복과 그것의 총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창조적 과정 자체와 함께 하는 것”⁷⁰⁾이라고 말한다.

65) 박치완, 「바슐라르의 윤리적 상상력과 풍경의 상상화」, 『프랑스학연구』 52, 프랑스학회, 2010 참조. 여기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운명 공동체’로서 새롭게 인식해야 하며, 이것이 윤리적 상상력의 핵심이라 주장한 바 있다.

66) Gaston Bachelard. *Science et poétique, une nouvelle éthique?*, sous la dir. de J-J. Wunenburger, Hermann, 2013.

67) 엄찬호, 「인문학의 치유적 의미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2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37~39쪽 참조.

68) 김유동, 「인간학, 치유, 그리고 우울: 인문 기반 우울치유를 위한 기초연구」, 『인문과학연구』 39,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444쪽 참조.

69) P. Ginestier, *op. cit.*, p.140.

70) Ilene Serlin, “The Relevance of Bachelard’s Dynamic Imagination for Movement Art Psychotherapy”, *The Arts in Psychotherapy* 19, 1992, p.191.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심리적 문제는 질병의 원인을 판별하고 이에 대해 처방하는 기존의 의학적인 접근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며, ‘인문 치유’, ‘철학 상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인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인문학에 토대를 두는 접근은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가능케 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은 인간 실존의 삶을 일깨우고, 늘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본래적 역량을 회복시킨다. 이런 점에서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은 인문학적 치유의 기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과 함께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성도, 「지각 공간과 의미 작용: 시각 기호학의 한 가지 문제」, 『동서문화』 32,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42~79쪽.
- 김유동, 「인간학, 치유, 그리고 우울: 인문 기반 우울치유를 위한 기초연구」, 『인문과학연구』 39,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437~476쪽.
- 엄찬호, 「인문학의 치유적 의미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2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421~441쪽.
- 박치완, 「상상력의 힘과 현대문명 비판」, 『비교문화연구』 9: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5, 43~65쪽.
- _____, 「바슐라르의 윤리적 상상력과 풍경의 상상학」, 『프랑스학연구』 52, 프랑스학회, 2010, 243~273쪽.
- 질베르 뒤랑, 『상상력의 과학과 철학』, 진형준 옮김, 살림, 1997.
- 홍명희, 「이미지와 상상력의 존재론적 위상」, 『한국프랑스학논집』 49, 한국프랑스학회, 2005, 421~440쪽.

- G. Bachelard, *La formation de l'esprit scientifique*, Vrin, 1938.
- _____, *La psychanalyse du feu*, Gallimard, 1938.
- _____, *L'eau et rêves*, José Corti, 1942.
- _____, *L'air et les songes*, José Corti, 1943.
- _____, *La terre et les rêveries de la volonté*, José Corti, 1948.
- _____, *La terre et les rêveries du repos*, José Corti, 1948.
- _____, *L'activité rationaliste de la physique contemporaine*, PUF, 3e éd., 1977.
- _____, *La poétique de l'espace*, PUF, coll. «Quadrige», 1984.
- _____, *La poétique de la rêverie*, PUF, coll. «Quadrige», 1984.
- R. Barthes, “Rhétorique de l'image”, *Communications* 4, 1964. pp.40~51.
- G. Durand, *L'âme tigrée*, Denoël/Gonthier, 1980.
- _____, *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 Dunod, 10e éd., 1990.
- F. Fruteau de Laclos, “Le sujet de épistémologie et l'objet de la phénoménologie, De quelques lignes tranquillement entremêlées dans l'entre deux-guerres français”, P. Cassou-Nouès et P. Gillot, éd., *Le concept, le sujet et la*

- science*, Vrin, 2011, pp.39~58.
- P. Ginestier, *Bachelard*, Bordas, 1968.
- A. J. Greimas, *Du sens*, Seuil, 1970.
- M. Heidegger, *Essais et conférence*, trad. A. Préau & J. Beaufret, Gallimard, coll. «tel», 1958.
- M. Joly, *L'image et les signes*, Armand Colin, coll. «Armand Colin Cinéma», 2008.
- M. Mansuy, *Gaston Bachelard et les éléments*, José Corti, 1967.
- H. Marcuse, *L'homme unidimensionnel. Essai sur l'idéologie de la société industrielle avancée*, trad. M. Wittig, Minuit, 1968.
- Ilene Serlin, "The Relevance of Bachelard's Dynamic Imagination for Movement Art Psychotherapy", *The Arts in Psychotherapy* 19. 1992, pp.187~191.
- Gaston Bachelard. Science et poétique, une nouvelle éthique?*, sous la dir. de J-J. Wunenburger, Hermann, 2013.

Gaston Bachelard and Therapeutics of Imagination

Kim, Yun-Jai · Park, Tchi-Wan

Gilbert Durand, anthropologist, diagnoses the present civilization as the menacing human's imagination, though it is providing various images by technical medium and emphasizing creative imagination. As this civilization is established on the base of rational capacity that enables the true cognisance, on the contrary, the imagination has been regarded as a secondary capacity.

The background of this diagnoses is that there is a hidden tradition, regarding the rational capability as of the true cognisance while the imagination as of the secondary capability.

On this tradition, more concerning rational capability, man has been acclimatized oneself on the process, regarding the nature as a object producing effective result and furthermore converting other people as well as oneself into economic value.

In this situation of the treat of humanity as the reification and alienation, Bachelard's theory of imagination has the value of alternative thought by suggesting the imagination that gives new meaning to image and transforms meaning.

The four elements of imagination, Bachelard's former study about imagination, describes the human's destiny and happiness by complementary relation appearing on contrary ends. Fire means the purification of spirit, dreaming objective cognisance and the coziness, awakening subjective emotion to human. Water symbolizes the superficial life, pursuing the ideal, and destiny of death, sinking into abyss. Air arouses the existence's soaring, getting out from reality, and the fear, the possible falling at anytime. Earth impassions the volition, making solid earth obey, and the happiness of rest, restoring the vitality by permeating inside.

Like this, the four elements are the elements going through human's entire life and happiness, and the integral imagination embracing four elements can

be thought. Bachelard says that it is the imagination that explains the existential life to human as well as provides a way for the new life, and enables creating a life. The creative imagination is the puissance to transform the imagined existence of human being. Awakening this puissance of imagination can be the key to cure the damage of humanity, the pending problem of contemporary civilization. Especially recently the studies of 'humanistic therapeutics' and 'healing', 'philosophical counselling' or so have been active in Korea, so here we have presented a rough sketch of the role and the value of therapeutics those inherent in Bachelard's theory of imagination.

Key words: Gaston Bachelard, Creative Imagination, Four Elements, Existential Life, Humanistic Therapeutics

투고일 : 2015. 04. 30. / 심사일 : 2015. 05. 10. / 심사완료일 : 2015. 05. 25.